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소영 보리수아래 회원 · 예술 활동가

발랄한 소영 씨의 '몸으로 쓰는 시'

〈詩〉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시 · 작사에 이어 '춤'으로 세상 소통
한 동작 위한 수천번의 연습 · 노력
'자등명 법등명' 되새기며 춤 수행
"꿈은 부처님 마음 표현한 춤 공연
…저마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영화 '소영의 노력' 포스터. **사진 출처=필름다빈**



김소영 씨(왼쪽)가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시낭송을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 회원이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 씨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오랫동안 신나게 호흡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소영 씨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드리며, 오늘도 춤 연습을 통한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캄캄한 공연장. 무대 위 한 무용수에게 핀조명이 비친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무대의 주인공 김소영(38) 씨가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허공에 원을 그리듯 팔을 뻗는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소영 씨에게는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한 움직임이다. 곧게 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으로 손끝 하나에 집중한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무용을 하지 못할까 봐 휠체어를 타라는 의사의 권유도 마다했다. 무대 위에 서기 위해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이 10번 연습해 익힐 동작을 100번, 1000번 연습해야 했다. 그렇게 한 동작 한 동작 몸에 새겼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이 무대가 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그렇게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김소영 씨의 시간을 담았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상,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 장편 관객상, 제8회 서울무용영화제 베스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소영 씨는 자신을 '장애인 무용수'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그냥 무용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소영 씨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며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처음부터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까지 소영 씨는 복지관과 집을 오가고 집 근처 화계사를 다니며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불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도반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누나, 장애인 불자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들어올래?" 소영 씨는 모임 이름부터 물었다. "이름이 뭐야?" "보리수아래."

그렇게 보리수아래와 인연을 맺었다. 평소 글과 사람을 좋아했던 소영 씨에게 보리수아래 활동은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 시를 쓰고 낭송하고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이다.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에서 도반들과 스님들이 함께 시 낭송을 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당시 낭독했던 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작품은 '한 조각 사랑 편지'다. 한 장만 남은 편지를 바라보며 어디론가 사라진 나머지 한 장의 편지를 상상하며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다.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영 씨는 공동시집 〈단 하나의 이유까지〉,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 등에 참여했고, '꽃과 별과 시' 등의 작사가로도 활동했다.

시와 글, 노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던 소영 씨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언어가 찾아왔다.

'춤'이었다.



김소영 씨가 무대 위에서 춤을 선보이는 모습. 영화 '소영의 노력'의 한 장면. **사진 출처=필름다빈**

30대 초반이던 2019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희정 무용가를 만났다. 처음부터 무용수를 꿈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춤을 경험하면서 무대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계속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요." 소영 씨는 정희정 씨에게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건넸다. 그리고 2023년, 기다리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소영아, 무용 다시 할래?" 소영 씨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네! 할래요!" 정희정 씨는 소영 씨의 이런 모습을 "끈질기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 끈질김이 결국 소영 씨를 다시 무대 위에 세웠다.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 정희정 씨와의 인연은 오재형 감독과도 이어졌고, 소영 씨가 춤을 배우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으로 기록됐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영 씨는 일반 무용수가 10번의 연습을 할 때 100번, 1000번의 연습을 해야만 생각했던 동작을 할 수 있다. 동작을 기억하고 몸으로 재현하는 데 더 많은 반복이 필요했다. 안무의 동선과 동작을 정확히 외워야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 있었다.

소영 씨는 선생님의 칭찬조차 경계했다. 칭찬에 도취돼 노력을 하지 않아 춤을 못추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초심과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거듭된 연습으로 굽었던 팔을 하늘로 향해 뻗고 두 팔로 원을 그렸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단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안무를 완성했고, 이 같은 노력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다잡는 방법이 됐다.

소영 씨는 자신의 춤을 '몸으로 쓰는 시'라고 표현한다.

"춤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보여줘야지! 나 잘하죠?'가 아니라 이건 글이에요. 한 편의 내 몸의 시예요."

무대에 오르기 전 먼저, 소영 씨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선생님과 함께 안무로 구성했다. 시와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던 소영 씨에게 춤은 또 하나의 문장이자 시가 됐다. "관객들이 보고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춤추는 게 느껴져요. '소영아 같이 하자. 같이 추자' 이런 느낌? 관객들과 함께 언제든지 신나게 놀고 싶어요!" 삶의 원동력이 된 춤을 추면서 소영 씨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린다.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소영 씨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경구다. 춤 역시 '하나의 수행'이라고 여기며 연습한다. 동선을 까먹거나 팔이 굽어 동작이 잘 되지 않을 때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다시 연습한다. 소영 씨는 "부처님이 항상 제 뒤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라며 미소 짓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 그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하고, 결국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든든함이다. 소영 씨의 신체를 검사한 의료연구원은 춤을 시작한 이후 '몸의 뻗는 힘'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과학적으로도 그의 몸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싹이 잎과 줄기를 뻗어가듯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죽을 때까지 두 다리로 걷고 춤을 추겠다고 다짐하는 소영 씨의 바람은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소영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저 노력해 보자는 격려다.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이 걸어온 노력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영 씨. 배려와 도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시, 노래, 이젠 춤으로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려움 속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 부처님에게도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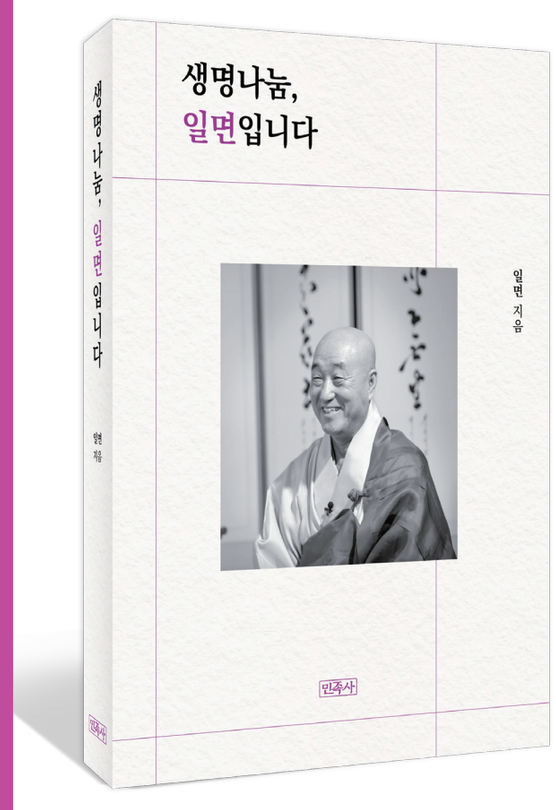
"나중에는 부처님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제 큰 꿈이니까요."

그 서원이 이뤄질 때까지 소영 씨는 계속 춤을 출 것이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긴 소영 씨의 춤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춤'에서 삶을 찾은 소영 씨. 뇌성마비란 장애물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무대 위에 섰다. 소영 씨는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장애물을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